

변화를 향한
카운트다운! 3,2,1

Now

정책자료집



목차

후보자 약력

출마사

총론

1. 교육권리 공약

2. 생활/복지 공약

3. 인권/사회 공약

4. 문화/자치 공약

5. 단과대와 함께하는 공약

간호대학 / 농업생명과학대학 / 음악대학

인문대학 / 자유전공학부

6. NOW의 약속 한눈에 보기

2015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입학, 외교/나침반 입회
제57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제3회 서울대학교 인권주간 기획단

2016 제34대 사회대 학생회 집행부 언론사회팀장
서울대 영어토론동아리 SNUDA 회장
10.10 전체학생총회 사회대 기획단 집행국장
총학생회 총회기획단 활동
2016 본부점거본부장
관악 여성주의 학회 달 학회장

2017 제33대 외교/나침반 학생회장
사회대 새터하는 사람들 문화팀장
4.4 전체학생총회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 의안
대표발언자

2018 제36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사회대 5.10 학생총회 기획단장
20여년만의 단과대(사회대) 학생총회 성사
H교수 파면을 위한 사회대 동맹휴업 제안·성사
차등등록금 특별위원회 위원장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제안자·학생공동대표
전국 대학민주화를 위한 대학생 연석회의 대표
서울대-김일성종합대학 교류추진위원회 참여

2016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입학

2017 제8대 자유전공학부 집행위원회 기획국장
전공분투기 '도대체 전공이 뭐길래?' 편집위원
자유전공학부 여름 벼리캠프 TF
제2회 자유전공학부 학부생 학술제 TF장
2017 자유전공학부 체육대회 TF
자유전공학부 인권위원회 설립 TF

2018 제9대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장

자치언론기금 파견위원
차등등록금 특별위원회 위원
시흥캠퍼스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자유전공학부 새내기대학 TF
2018 새터준비위원회 사무팀
사회대&자유전공학부 가을 밀양 연합농활 총농활대장
전국 대학 민주화를 위한 대학생 연석회의 집행위원
서울대-김일성종합대학 교류추진위원회 참여



변화를 향한
카운트다운! 3,2,1
NOW



정후보 출마사



정후보

윤민정

정치외교 15

저는 2016년, 시흥캠퍼스 사업에 맞선 전체학생총회를 준비하며 본격적으로 학생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성사될 것이라 확신하지 못했던 총회에 2000명 넘는 학생들이 모여 자신의 권리를 외치던 그 순간은 제게 다시는 그 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시흥캠퍼스를 막아내지 못했고, 성낙인 총장을 퇴진시키지 못했으며, H교수를 파면하지 못했습니다. 혹자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의 가장 앞에 섰던 저의 방향성에 의문을 품을 것입니다. 학교를 바꾸기 위한 움직임은 실패해 온 것 아니냐고, 다른 학생회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물을지 모릅니다.

저는 당당히 답하겠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저는 쇠퇴해가는 학생회에 대한 신뢰를 마주하며, 학생회는 학우 누구나가 일상에서 겪는 문제를 제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일상의 바로 그 작은 문제들조차도 학교의 구조와 권력을 우회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학생의 힘 없이는 절대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구호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주장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적 대안의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이 모든 깨달음이 바로 올 한 해 동안 사회대 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며 몇 년째 해결되지 않던 사회대인의 요구들을 실현시킬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약 20년만에 단과대 전체학생총회를 성사시키며 학생공간, 수업권 요구들을 해결했습니다. 단과대 학생회장으로서 가장 도전적인 공약들을 내걸었고, 누구보다 공약 이행률도 높았다고 자부합니다.

좋은 공약은 누구나 내걸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참여를 등에 업고, 당신의 목소리를 더 크게 키워 우리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당신의 일상에 통쾌한 변화를 가져오겠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책임지는 실력 있는 총학생회장이 되겠습니다.

제61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NOW> 선거운동본부 정후보 윤민정 드림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장에 막 당선되었을 때 저는 혹여 학생회 사업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우들과 함께 새내기배움터의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자유전공학부만의 새내기 대학을 진행하고 나니 그 걱정이 기우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농활부터 생리대 보관함까지 크고 작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학생회가 우리의 삶에 지금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더 넓은 공간에서, 우리 대학이 마주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과 학우들의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고민을 오래 하는 사람입니다.

돌다리도 여러 번 두드려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문제에 대한 답을 단숨에 제시할 수는 없지만, 수많은 방안을 신중하게 비교해보고 맞닥뜨린 문제에 대한 최선의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몇년째 반복되는 요구에도 변치 않는 강의실. 해마다 잊을 만하면 또 발생하는 인권침해사건. 등록금 사용 내역을 당당히 공개하지 않는 학교. 우리 학교에는 아직 해결할 문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개인이 해결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학생회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일상 속의 문제를 학우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학생회, **새로운 요구를 끊임없이 던지는 학생회,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한 힘을 모으는 학생회**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강의실.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제도가 마련된 학교. 등록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믿을 수 있는 학교. 이 모든 변화를 NOW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일상의 변화를 위해 지금부터 행동하는 부총학생회장이 되겠습니다.

제61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NOW> 선거운동본부 부후보 차우형 드림

부후보 출마사



부후보
차우형
자유전공 16

NOW 가 약속하는 —

당신의 삶을 바꾸는 총학생회가 필요합니다

매 학기 수강신청을 할 때마다, 강의실에 들어설 때마다, 등교하는 아침마다 우리 삶에서 뭔가 바뀌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지 않나요?

편하게 통학할 수 있었으면,
원하는 수업을 마음껏 들을 수 있었으면,
학점경쟁에 덜 시달릴 수 있었으면,
기숙사 입주가 좀 더 쉬웠으면….

총학생회는 이런 당신의 삶을 바꾸는 주체여야 합니다.

학생들의 대표기구인 **총학생회가 요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는 대안을 상상해야 합니다

한계를 정해두고 안 될거라며 먼저 포기하는 총학생회는 학생의 권리를 위축시킵니다. **대안을 상상하고,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총학생회라면 학생의 필요보다 훨씬 적은 기숙사 TO를 그대로 두고 내부 경쟁을 조장하는게 아니라, 서울시와 학교에 공공기숙사를 통해 파이 자체를 늘려달라고 요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총학생회라면 누군가는 선착순 수강신청에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패하게 될 것이 아니라, 학생을 위한 교육재정을 우선 배정해 수업 자체를 늘리라고 요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총학생회라면 누군가는 무조건 C학점 받아야 하는 의무상대평가 제도에 맞서, 대학교실에 상대평가가 왜 필요하냐고 물을 줄 알아야 합니다. NOW는 우리의 가능성은 한정짓지 않겠습니다.



정후보
윤민정
정치외교 15

총학생회의 모습

답답한 현실에 통쾌한 변화를 만드는 실력있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좋은 공약은 누구나 내걸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NOW의 정후보 윤민정은 사회대 학생회장 시절, 약속한 교육환경 개선 **공약을 거의 모두 달성**했습니다.

학생공간, 수업 확충 등 4~5년째 외쳐왔지만 실현되지 않던 요구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학우들의 뜻과 힘을 모으는 학생총회와 교육권리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간 공약으로만 제출되었지만 실현방안은 없었던 문제들에 **당신의 '참여'를 더해 해결해낸** 것입니다.

당신의 참여가 더해지면
학교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If not now, when?
If not you, who?*

부후보
차우형
자유전공 16

변화를 향한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3,2,1, Right NOW!



제61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NOW> 선거운동본부 드림

몇 년째 똑같은
총학생회 공약,

결국 문제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입니다.

변화를 향한
카운트다운! 3,2,1

Now



총학생회라면
기술사TO를 그대로 두고
내부경쟁을 조장하는게 아니라,

파이 자체를 늘려달라고
요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변화를 향한
카운트다운! 3,2,1

Now



H교수 이후의 서울대는
그 전과 달라야합니다.

각자도생의 시대에
공동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변화를 향한
카운트다운! 3,2,1

Now

단과대학 함께



NOW가 연건캠퍼스 학우들에게 드리는 약속 연건-관악 연계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연건에는 총학생회가 없다?

연건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관악만의 총학생회, 이제 그만합시다.
연건캠퍼스의 문제는 그저 선거공약에서만 다뤄지나요?

연건-관악 연계 강화로 총학생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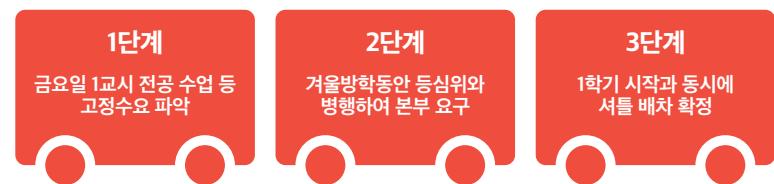
실현방안 하나, 총학과의 직접소통 NOW!

관악까지 1시간30분 거리, 너무 멀게 느껴지는 총학. 내 말이 닿기는 할까?
NOW는 총학생회 온라인 의무답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소한 질문부터 진지한 의견까지 놓치지 않고 성실히 듣겠습니다.



실현방안 둘, 연건셔틀 도입 NOW!

이미 많은 간호대/치대 학우들은 같은 날 연건캠퍼스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수업이 있는 날 운영하는 연건-관악셔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실현방안 셋, 연건 축제를 서울대 축제로 NOW!

연건 축제는 연건캠퍼스 학우들이 알아서 책임져라?
연건캠퍼스도 서울대학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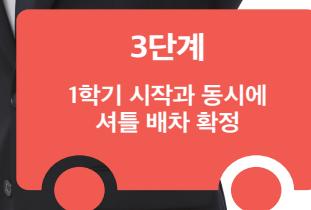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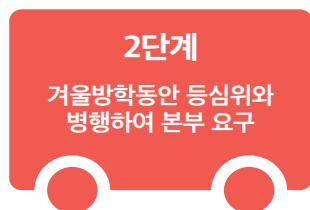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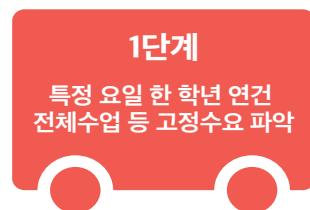
축제 지원을 연건캠으로 확대하여, 연건축제를 명실상부한
제2의 서울대 축제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 총학생회 NOW X 간호대 UNI-CON의 공동공약

하나, 연건-관악 셔틀 NOW!

이미 많은 간호대/치대 학우들은 같은 날
연건캠퍼스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수업이 있는 날 운영하는 연건-관악셔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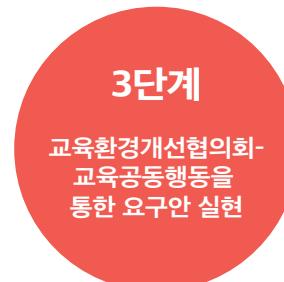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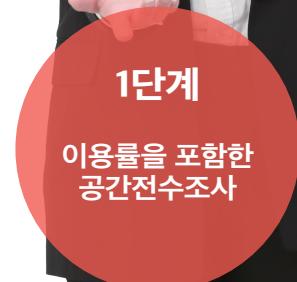


둘, 간호대 관악 과방 확보

간호대학의 관악캠퍼스로의 이주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악캠퍼스에 가면 간호대 학생들은 어디서 지내야하나요?

NOW는 간호대 학우들의 당연한 권리인
학생공간을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간호대 학우들의 뜻을 직접 모아,
간호대 학생들의 힘으로 이뤄내겠습니다.



1. 학생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채 이뤄지고 있는 공간 논의, 인문대 학생들의 공간은 누가 책임지나요?

학생공간에 대한 고려 없이 7동 리모델링이 추진될 경우,
7동의 반방, 과방을 사용하던 학생들은 공사기간 동안 쉴 곳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리모델링 후 7동의 공간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학생들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코어사업이 2019년 2월을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14동 607호에 위치한 사무실이 반환될 예정입니다.

새로 생기는 공간을 학생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14동 607호를 비롯한 공간 배분 논의는

*인문대 기획위원회에 의해 밀실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문대학 기획위원회- 인문대 내 건물 설계 및 공간 배정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가진기구

**NOW는 인문대 학생회 선거운동본부 '고동'과 함께,
인문대 학생공간 확충을 책임지겠습니다.**

하나, 공간 밀실논의는 그만! 인문대 기획위원회 참여를 요구하겠습니다.

둘, 14동 학생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코어사업 사무실로 사용되던 607호의 학생공간 전환을 요구하겠습니다.

2. 인문대 소극장 이용시간을 연장하겠습니다!

오후 10시로 제한된 인문대 소극장 이용시간,
저녁 연극 및 공연 진행에 불편을 겪는 동아리들을 위해
인문대 소극장의 이용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이 공약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NOW와
농생대 선거운동본부 리본의 공동 공약입니다.
두 선본이 함께 당선될 경우,
이 공약의 우선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NOW가 농생대학 학우들에게 드리는 약 : 총학생회 NOW

하나, 과방 마련 NOW!

현재 과방으로 이용되고 있는 과사무실 옆의 라운지,
과방이라기에는 넓지도 않고 훤히 개방되어 있어 불편하시죠?

여러분의 진짜 과방, NOW가 찾아드리겠습니다!

1단계

캠퍼스 내
유휴공간 조사



2단계

농생대 학생공간
수요 파악



3단계

독립된 공간 형태의
과방 마련

셋, 장터 공간 마련 NOW!

내년부터 농생대 장터는 교수님들의 반대로
농식 광장에서 열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존 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 대안, NOW가 제시하겠습니다.

교육부의 학내 주류 판매 금지,
NOW는 리본과 함께
이렇게 대응하겠습니다.



X 농생대 리본의 공동공약

둘, 장터 주류 판매 부활 NOW!

술 없는 농생대 장터를 상상할 수 있나요?

올해 초, 교육부는 '금주령'으로 대학 내 학생의 주류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이대로 손 놓고 있는다면 사라져버릴지도 모르는 농생대 장터,

NOW와 함께 지켜냅시다!

1. '금주령' 보완 입법 요구

교육부에 금주령 철회 및 보완
입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

2. 관악구 조례개정으로 합법적 주류 판매

관악구의회를 통해 서울대 학생회에
주류판매사업자 등록증 발급

3. 생협이나 기숙사 마트를 통한 장터 부스 운영

주류판매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서울대 생협,
기숙사 GS마트의 이동형 부스를 장터와 함께
설치해 주류 판매, 학생 장터는 안주 판매

1단계

농생대 학생회에서
장터 일자 수합
및 장터 기간 확장



2단계

본부와 협상하여
기간 내 학생회관
앞 공간 일괄 대여



4단계

농생대
장터 진행!



3단계

간이 테이블 비치
등 해당 공간을
장터에 맞게 정비



NOW



이 공약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NOW와
자유전공학부 선거운동본부 피움의 공동공약입니다.
두 선본이 함께 당선될 경우,
이 공약의 우선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NOW가 자유전공학부 학우들에게 드리는 : 총학생회 NOW X 자

하나, 장터 부활 NOW!

올해 초 교육부의 금주령으로 인해, 위기에 몰린 장터!
반 장터는 봄마다 진행되온 자
이대로라면 장터는 영영 뒤안길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장터, NOW가 부활시키겠습니다!

교육부의 학내 주류판매 금지, NOW는 피움과 함께 이렇게 대응하겠습니다.

둘, 수업권리찾기 PROJECT!

수강 신청 직전까지 올라오지 않는 주탐 강의계획서,
강의 평가 속 의미 없는 문항,
이의제기 기간이 끝날 때쯤 공개되는 성적은 이제 그만!

우리들의 수업권리, NOW가 되찾겠습니다.

1. 강의계획서 업로드 의무화!
2. 강의평가 문항 개선 및 결과 공개 요구!
3. 성적 공개기간과 이의제기 기간 분리해 이의제기 기회 보장!

약속

자유전공학부 피움의 공동공약

1. '금주령' 보완 입법 요구

교육부에 금주령 철회 및 보완
입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

2. 관악구 조례개정으로 합법적 주류 판매

관악구의회를 통해 서울대 학생회에
주류판매사업자 등록증 발급

3. 생협이나 기숙사 마트를 통한 장터 부스 운영

주류판매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서울대 생협, 기숙사 GS마트의
이동형 부스를 장터와 함께 설치해
주류 판매, 학생 장터는 안주 판매



셋, 등록금 근거 공시 요구 NOW!

선택한 전공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등록금,
우리가 낸 돈인데 어디 쓰이는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등록금 산정 근거, NOW가 요구하겠습니다.

실험실습비/재료비 책정근거 공개, 전공별 실습비 사용내역 공개
12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하겠습니다.

NOW가 음대 학우들에게 드리는 약속

: 총학생회 NOW X 음대 vivace의 공동공약

이 공약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NOW와
음대 선거운동본부 vivace의 공동공약입니다.
두 선본이 함께 담신토 경우,
이 공약의 우선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NOW × vivace

하나, 음악대학 예산 및 사용 내역 요구!

390만원에 이르는 매 학기 등록금,
학교에 왜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음악대학 예산 사용 내역 공시, **NOW가 요구하겠습니다.**

우리의 등록금 권리찾기, NOW가 요구하겠습니다.

1. 등록금 심의위원회 대응!

12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 사용 내역 공개 요구
실습비와 강사비 등 등록금 책정 근거 공개 요구

2. 학교 돈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나?

학생이 주도하는 예산 재정감사로 서울대 재정 파헤치기



둘, 음악대학 학생 공간 마련!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는 학생 공간, 음대에도 마련하자!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유휴 공간을 파악해
NOW가 학생공간으로 받아내겠습니다.

NOW의 학생공간특공대!

1단계. 공간 이용률 전수조사

음악대학 내 유휴 공간과 학생공간 수요를 조사하겠습니다.

2단계. 공간별 관리주체 확인 및 음대 학생회와 함께 학생공간 보장 요구

단과대 학생회와 함께 음악대학 내 유휴공간을
학생공간으로 받아내겠습니다.



변화를 향한
카운트다운! 3,2,1

Now



Now 가 약속드리는



① '직ullet'은 더 이상 없다!

모두를 위한 공공기숙사

- 봉천동, 신림동 일대 원룸들을 기숙사비와 비슷한 수준에 살 수 있는 서울대생 '공공기숙사'로 전환!
- 사회적 기업 '어울리는 집'과 함께하는 공공기숙사 설립
or 학교/서울시/관악구의 재정 지원을 통한 공공기숙사 설립

② 캠퍼스 내 지하철역 신설 요구

신길선 경전철 학내도입 무산, 이제 남은 것은 서부선!

신촌에서 서울대입구역으로 이어지는 서부선이 내년 착공을 목표로 노선 논의 중??

- 학교 측에 서부선 연장 사업 참여를 위한 연구 진행 및 적극적 의견 개진 요구
- 서부선 연장 및 공사비 투자에 관해 학내 구성원 전체 의사를 묻는 투표 제안
- 교내로 이어지는 서부선 연장 노선 사업 협의

③ 수업권리찾기 PROJECT!

· 전공/교양 강의 수요조사 후 10대 확충대상 선정, 확충 요구

· 단과대 및 학과별 강의 추가 개설 요구 · 강의계획서 업로드 의무화

정후보

윤민정

정치외교 15

④ 의무적 상대평가 STOP!

학교 마음대로 도입한 A-B-C 3:4:3의 의무적 상대평가제도, 수업 자율성을 존중하며 대신 객관적/예측 가능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환!

⑤ 과방, 동방 얹어내자!

학생공간 특공대

10대 공약

⑥ 등록금, 알고내자!

등록금 파헤치기 NOW!

-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실험실습비/재료비 책정근거 공개, 실습/재료비 지원 확보, 실습비 사용내역 공개 요구
- 학생이 주도하는 서울대 예산 재정감사
- 9학점 이하 수강시 등록금 감액: 수강 학점에 따른 차등적 납부로 등록금 합리화!
-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지원금 확대로 학생 등록금 부담 낮추기

⑦ H교수 사건은 다시 없어야 한다

서울대학교 인권가이드라인 공식 규정화

⑧ '서울대 안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SAFE CAMPUS 프로젝트

- 학내 몰카 정기 점검
- 학내 안전 관리 체계 전수조사
- 야간 경비 인력 확충
- 샤워실, 휴게실 S-CARD 카드키 도입 요구

⑨ 대학가 '금주령' 대응으로
장터/축제 살리기

⑩ 행정관 앞 '총장잔디'
개방 요구



부후보

차우형
자유전공 16